월/화	(학번) 20200185	(이름) 장수진	(7)조

▣ 타이틀	너의 자리 (가제)
▣ 장르	청춘, 우정
▣ 형식	단편 드라마
▣ 2줄 요약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대학생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치유하는 이야기
▣ 기획의도	나의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내 몸과 마음은 망가졌고 친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친구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그 애도 그걸 바랄 테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청춘의 극복기를 통해 저마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뜨겁게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내 옆 사람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한다.
▣ 인물소개	윤혜지 (22세, 대학생) - 대학교 3학년,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여자. 그녀에게 가장 힘이 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소꿉친구인 지수이다. 그런 친구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 이지수 (22세, 대학생) - 지수의 소꿉친구. 아르바이트 후 밤늦게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 시놉시스	혜지와 지수가 처음 만난 것은 일곱 살 때였다. 집 앞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지수에게 같이 시소를 타자고 제안한 혜지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이들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비록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혜지네 집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지만, 둘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말에 만나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도 가고, 가끔은 서로의 집으로 놀러가 시간을 보냈다. 혜지와 지수가 서로의 학교와 교복을 부러워하는 새에 시간은 흘렀고, 둘은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과는 다르지만 과 동기들보다 더 붙어 다녀 둘의 우정은 다른 동기들에게 유명할 정도였다. 3학년 1학기 시험기간, 혜지는 알바를 하러 간다는 지수를 배웅해준 뒤,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혜지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지수의 사고 소식 그리고... 사망 소식. 지수의 장례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혜지는 자신과 지수를 찾는 동기들의 연락을 뒤로 한 채 눈물만 흘린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엄마의 전화에 꾸역꾸역 학교에 갔지만 지수가 그저 자퇴한 줄로만 아는 동기들의 관심과 질문은 혜지를 괴롭힌다. 결국 휴학을 결정한 혜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우울에 빠져 있던 혜지는 지수와 여름방학 때 시골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을 떠올리고, 엄마와 상의 끝에 홀로 그곳으로 가 지수를 보내주고 오기로 결심한다. 혜지가 도착한 곳은 혜지와 지수가 14살이 되던 해에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놀러왔던 민박집이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며 천천히 길을 걷는 혜지. 그러다 문득 지수와 함께 묻어뒀던 타임캡슐이 생각난다. 어른이 되면 다시 함께 이곳에 와 꺼내보기로 했던 타임캡슐. 비록 함께 열어볼 순 없지만 혜지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땅을 파 캡슐을 꺼낸다. 캡슐 안에는 편지 봉투 두 개와 작은 선물 상자 두 개가 들어있다. 혜지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 작게 웃는다. 천천히 발이 닿는 대로 여행을 이어간 혜지. 어느덧 계획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동안 혜지는 지수와의 추억을 열심히 곱씹었고, 잊기 전에 기록했다. 그렇게 지수를 보낼 준비를 다한 혜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캡슐 속 지수의 편지와 선물 열어본다. 지수의 선물은 노란색 장미가 달린 문방구 반지였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며 혜지는 울음을 터뜨린다. *노란 장미의 꽃말은 '변치 않는 우정'이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금으로 된 장미 반지 사줄게. 그때까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내 소중한 친구 혜지야 사랑해.* 집에 돌아온 혜지는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옆에 노란 장미꽃을 두며 말한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